

## 전북도 '66조 프로젝트' 산업 대전환 시동

타운홀·현대차 투자 후속 행보 속도  
전북 산업지형 전환 4대 전략 축  
SOC·AI·에너지·농생명 57개 사업  
새만금 RE100·AI산업 거점 구축  
범정부 TF 가동 후속사업 본격화

전북도가 지난달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협약을 발판 삼아 본격적인 대전환에 나섰다.

국가와 민간이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는 가운데 전북은 범정부 지원 체계를 등에 업고 후속 행보에 탄력이 붙었다.

전북이 지난달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이례적으로 4개 부처가 나란히 전북 발전 과제를 발표한 이 자리에서, 전북의 미래는 지역만의 숙원을 넘어 국가가 함께 풀어야 할 의제로 공식 격상됐다. 도는 타운홀미팅 이후 각 부처 장관 발제와 정부 자료를 분석해 SOC·새만금 기반·AI 및 에너지·농생명 등 4대 분야 57개 핵심 프로젝트를 도출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최대 약 57조 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SOC 분야(15개 사업·약 41조 원)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개항,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등을 통해 전북을 '1시간 광역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만금 기반 분야(9개 사업·약 4조 7,000억 원)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산업용지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AI 수소시티 조성,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새만금을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한다.

또 AI·에너지 분야(11개 사업·약 8조 원)에서는 퍼지컬 AI 실증랩 및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소 산업·해상풍력 결합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거점을 조성한다. 농생명 분야(22개 사업·약 3조 7,000억 원)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헬프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전북을 'K-푸드 세계화의 기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담겼다.

현대차그룹은 같은 날 새만금 지역에 수소에너지·AI 데이터센터·로봇 등 미



타운홀·현대차 투자 전북 산업 대도약 신호탄 12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타운홀미팅 및 현대그룹 투자협약 후속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래산업 분야에 약 9조 원을 투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내 단일 지역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로, 새만금이 단순한 개발 부지를 넘어 실질적인 첨단산업 집적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됐다. 정부는 이에 화답해 지난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Kick-off 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산하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전폭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새만금·전북 대혁신 종합지원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수립될 예정이다. 새만금 RE100 전용 산단 조성, 퍼지컬 AI 실증랩 구축, AI 데이터센터와 수소 산업이 맞물리는 집적 클러스터 등이 핵심 과제로 담긴 전망이다. 타운홀미팅이 전북의 비전을 국가 의제로 올려놓았다면, 현대차 MOU는 그 의제에 9조 원짜리 민간의 서명을 더한 셈이다.

타운홀미팅과 현대차 MOU는 두 계기를 실행으로 연결하기 위해 도는 신속하게 후속 체계를 구축했다.

4일부터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미래첨단산업국장이 총괄하는 '현대차 투자지원 공무원 전담제'가 가동됐다. 소통기획·로봇·수전해플랜트·재생에너지·AI데이터센터·수소AI스마트도시 등 6개 분야별 전담 팀장이 배치돼 주간 회의를 정례화하고 범정부 TF 대응부터

개별 사업 리스크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구조다.

제도적 뒷받침도 뒤따랐다. 도는 지난 5일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발의한 23개 특례와 2월 25일 기준에 발의된 18개 특례를 포함해, 로봇 실증특구 지정, 퍼지컬 AI 산업 육성, 수소생산 촉진지역 지정,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지원 등 총 41개 특례를 담았다.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현대차와의 핫라인을 구축해 투자 초기부터 구체화 단계까지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타운홀미팅 후속 조치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도 편성했다.

실국별 책임관리 아래 월간 실국 점검, 분기별 TF 점검, 반기별 성과공유가 맞물리는 이행 관리 체계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핵심사업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 건의,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실과의 공조도 본격화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협력도 병행 추진한다.

로드맵은 3단계로 설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타운홀미팅 정책과제의 사업화와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국가계획 반영과 핵심사업 예산 확보에 집중한다. 2027년 이후부터는 핵심 프로

젝트가 본격 궤도에 오르며 실질적 성과 창출 단계로 진입한다. AX대학원, SW중심대학, AI 부트캠프, 인공지능고등학교를 연계한 단계별 인재 양성 체계도 병행 구축해 새만금 미래산업의 지속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투자와 연계해 이번 프로젝트들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가 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타운홀미팅으로 확인된 정부의 의지와 현대차 투자가 맞물리면 전북의 산업 지도를 바꿀 실질적 동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이수진 도의원, 교육청 올림픽 출장 예산 집행 정당성 정면 질타

출장 5명·티켓 7명분 결제 의문  
나머지 두 명 누가 갔나?

25·26년 예산 나눠 집행도 논란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열린 제 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 권한대행 등 교육청 직원 5명이 다녀온 밀라노-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 출장과 관련해 직무 권한과 예산 집행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12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출장과 관련해 확인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을 사용해 올림픽 유치 지원 관련 해외 출장을 진행한 점
- 출장자는 5명인데 공연·개막식·경기 관람 티켓은 7명분으로 결제된 점
- 출장 공식 일정에도 없는 이탈리아 클래식 공연 관람
- 우리나라 선수와 직접 관련 없는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
- 출장 경비가 2025년 예산 잔액과 2026년 예산 일부를 활용해 두 건의 지출결의서로 나누어 집행된 점

- 출장 경비가 2025년 예산 잔액과 2026년 예산 일부를 활용해 두 건의 지출결의서로 나누어 집행된 점
- 출장 경비가 2025년 예산 잔액과 2026년 예산 일부를 활용해 두 건의 지출결의서로 나누어 집행된 점

먼저 이수진 의원은 "출장 지출결의서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부위원장 역할 수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아직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권한대행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해당 정책에 위촉되었는지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



유정기 부교육감

다. 특히 "전북도 차원의 범도민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현황에서도 교육감 자리는 공식으로 되어 있다"며, "권한대행이 어떤

근거로 올림픽 유치 관련 해외 출장을 수행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역할 수행을 위한 출장이라면 교육청이 아닌 전북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출장 경비가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비로 집행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은 학교 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올림픽 유치 관련 해외 활동이 해당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의회에 사전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의회 승인 여부가 아니라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사용한 그 자체에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집행된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만큼 출장 경비 환수 등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 질타했다.

<2면에서 계속>

## 전북개발공사,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

단독주택·준주거·주차장용지 포함  
25~26일 온비드 경쟁입찰 진행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고창 덕산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주차장용지 31필지를 3월 25일부터 온비드 전자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는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

성되는 토지로 단독주택용지 16필지(178~204백만원), 준주거시설용지 13필지(508~892백만원), 주차장용지 2필지(367~373백만원)이다.

공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25일 10시부터 26일 18시까지 경쟁입찰 방식

으로 진행되며 유찰된 토지는 별도 일정에 따라 재공급 예정이다.

이번 공급은 지역 내 주거 수요를 충족

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고창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이 조성한 택지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과 인구 감소 대응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공사는 상기 택지 및 전주 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익산 부송4지구 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 전북 도의원 지역구 정수 10% 정도 늘어날 듯

### 현재 인구편차 위험 판결 후속 조정 현 지역구 36개에서 40개 내외로 각 시군 최소 1명↑ 부안 2명 될 듯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가 현행보다 10% 정도 늘어난 40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정개특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으나, 문제가 되는 (전북과 경북)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의원 정수를 10% 내외로 늘려, 인구 편차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전북도의회 장수군 선거구 인구편차가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위헌이라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했다. 이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의회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4만 9,765명이었지만 장수군의 인구는 2만 1,756명으로 인구 편차가 50%를 넘어선 56.29%로 헌법을 위반했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전북도의회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의 시·도의원 정수가 최소 1명 이상이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의 자치구에서 1명의 시도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구의 인구수 대신 선거구의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 선거구별 인구 표준편차를 50% 미만으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개특위가 이같이 결정한다면 전북

은 현행 광역의원 지역구 36개에서 4개 정도가 늘어난 40개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북의 모든 기초단체가 1명의 이상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물론 인구가 5만명 선인 부안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50%를 넘는 지역이 전북 장수와 경북 청송군, 울릉군 등"이라며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나 전북과 경북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를 약간 늘려 해소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1면에서 이어서>

특히 이번 출장 경비는 2025년 기본 종목 육성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과 2026년에 편성된 예산 일부를 활용해 집행된 것도 지적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출장자는 5명인데, 클래식 공연과 개막식·경기 관람은 7명분으로 이루어지고, 공식 일정에도 없는 클래식 공연 관람이 이루어진 점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출장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무국의여행 심사 과정과 관련하여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무국의여행심사위원회는 내부 위원 10명, 외부위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 출장

"위법성에 반드시 책임 묻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심사와 관련해 의원에게 제출된 의견서는 6건에 불과했고 모두 교육청 내부직원 의견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의무위원 의견 없이 내부직원 의견만으로 공무국의출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심사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의 책임성 문제이다"라며, "출장의 시작부터 자적, 일정, 예산 집행 과정까지 여러 문제가 확인된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해빙기 취약시설 합동점검...붕괴·낙석 선제 대응

### 행안부·시군·전문가 합동반 구성 옹벽·급경사지·저수지 제방 집중

전북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3일 간 도내 해빙기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표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겨울철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균열과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정부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표본점검 대상 16개소 중 6개소는 행정안전부와 도, 시군 담당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실시해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2개 반 17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 구조 안정성, 지반 상태,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옹벽·절토사면과 급경사지의 균열 및 침하 여부, 낙석 발생 가능성, 저수지 제방 누수 및 사면 침하 여부, 건설현장 굴착 사면 붕괴 위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의 경우 석축과 담장, 지붕 등 주변 시설물 상태와 함께 소화기 및 CCTV 등 방재설비 작동 여부, 재난 대응체계 관리 상태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사진=전북자치도>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낙석이나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도내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의 순창서 개최

###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참석 현안 취회 '장 담그기' 민생 체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북 순창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과 순창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민주당 전북당은 12일 공지를 통해 순창군 순창읍 소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국민 걸로! 현장 속으로' 장 담그기 민생체험과 함께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10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1

시부터는 장담그기 체험을 하기로 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7시 10분 용산역에서 KTX를 이용해 남원역을 통해 순창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순창 최고위원회의에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황명선·강득구·이성운·문정복·박지원·박규환 순창군 순창읍 소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국민 걸로! 현장 속으로' 장 담그기 민생체험과 함께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10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1

## "전북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

전북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사다리'를 구축,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전북 소상공인 총사자수는 총 374,802명으로 도내 총종사자 중 62.6%, 사업체수는 총 273,327로 도내 총사업체수 중 96.3%를 차지하고 있어 민생경제의 큰 축으로 경제적·정책적 중요성이 높지만, 그간 전북 소상공인 정책은 이 '성장'보다 '경영안정'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는 것. 전북연구원은 1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가 마추한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는 부산 소상공인 육성(B-LICON: Busan-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전략 수립,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 '부산 LICON 펀드'를 조성해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전북 도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동력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역경제 버팀목의 역할을 넘어 지역경제 역동성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장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다음 5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구축에 소상공인을 단순히 법정 정의에 따른 기준이나 생애주기로 구분하기보다 산업단계, 혁신성, 성장잠재력 등에 따라 세분화하고 맞춤형 육성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소상공인 성장 및 지원사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 성장 기반 구축형 모델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으로 성장패키지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셋째, 지역경제 주체로서 성장과 육

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투입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전북 소상공인 성장촉진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넷째,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 및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걸맞은 운영 역량과 조직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전달-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장정철 기자

## 이원택 "정부, 새만금·전북 대혁신 선언 환영"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11일) 밝힌 '새만금·전북 대혁신 추진' 의지를 전북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킷오프 회의에서 '새만금은 오랜 기간 국민의 노력과 국가적인 투자가 진행돼 왔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했던 시간 내에 내지 못하고 일종의 희망 고문처럼 돼 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그러한 상태를 마무리하고 예측 가능한, 확실하게 실행 가능한 시기에 책임질 수 있는 방법과 투자를 통해서 새만금에 대해서 국민과 전북 도민이 이제는 안정적인

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재 정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총리는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의 미래 첨단 산업에 약 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쾌거, 경사가 있었다'고 소개했다"며 "이 또한 전북과 대한민국의 초연대화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30년째 이어진 개발이 희망고문인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을 정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원택 의원

# 전주시 경기전·전라감영 단청 복원

## 오방색 옛모습 복원 공사 착수

전주시 대표 문화유산 경기전과 전라감영지가 옛 모습을 되찾는다. 전주시는 경기전 정전과 전라감영지 내삼문에 대해 전통안료를 사용한 단청 복원 공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청은 청·적·황·백·흑의 오방색을 기본으로 목조 건축물에 여러 가지 색으로 무늬를 그리는 장식 기법이다.

단청공사는 햇빛과 비바람, 병충해로부터 목재를 보호하고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능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현재 경기전 정전 단청은 노후화 및 박리 현상 등으로 훼손된 상태다.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과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증자료가 남아 있는 1872년 시점에서의 복원이 결정됐다. 단청 문양은 위계에 따라 3가지 형식으로 나뉘어 정전과 배위청은 금모로단청,

익랑과 월랑, 정전 배면 처마부는 모로단청, 정전 측면 상부 풍판 안쪽은 굵기 및 가칠단청으로 구분해 단청을 입힐 예정이다. 또 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복원한 전라감영지 건물에 대해서도 올해 내삼문 모로단청부터 순차적으로 건물별 단청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라감영지 건물의 경우 단청이 칠해지지 않은 백집으로 형태 등 공방이로

문제가 야기됐으며, 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목재가 충분히 건조됐다고 판단되는 만큼 부재를 보호하기 위해 단청을 입히기로 결정했다. 시는 타지역 감영 및 지역 내 타 건물의 단청 사례를 참고해 단청 문양 구성을 구체화해 전라감영 전체 복원 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이에 단청공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소민 기자

## 국보 '태조어진'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만나다!

### 국립전주박물관 테마전 '기록의 보고寶庫'를 열다 전시

전주시 어진박물관 소방 국보 '태조어진' 국가유산이 국립전주박물관에 전시된다. 전주시는 국보 '태조어진'과 어진을 보관할 때 사용된 도지정문화유산인 '흑장계' 등 어진박물관 소장 유물이 24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테마전시 '기록의 보고寶庫'를 열다에 출품·전시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유물이다. 조선 초기 초상화의 회화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국립전주박물관 전시는 '조선 왕실의 분향'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 전주 사고본 가치를 조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외규장각 의궤와 지도, 궁중기록화 등 다양한 기록문화유산과 이를 남기고 지켜온 사람들의 노력도 함께 조명한다. 태조어진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초상화로,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제작된 어진 가운데 유일하게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와 함께 국보 '이화개국공신 녹권'과 '기해기사계첩', '세종실록'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가유산 원본을 한자리에 모두 만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기록의 보고寶庫'를 열다 특별전시는 5월 25일까지 운영되며 국보 태조어진과 세종실록 등은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오는 24일까지만 관람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중동지역 분쟁 유가상승 등 민생안정 대책회의' 개최

## 유가물가기업에로사향·취약계층보호 대책 마련

전주시가 민생경제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주시는 12일 '중동 지역 분쟁 관련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유가 상승이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서 오는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중점내용에는 유가·물류비·난방비 상승에 따른 시민 생활과 기업 피해를 집중 점검·모색했다. 관련해 시는 유가와 물류비 상승에서 오는 시민부담 등을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또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을 활용해 전주지역 최저가 주유소 정보를 시민에게 안내하며 전북본부 석



전주시는 12일 중동 지역 분쟁 관련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주시>

유관기관과 가짜 석유 판매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나선다. 버스과 화물 등 운송업체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상향해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주시기업통합지원센터'에 피해 상황을 상시 접수하고 금융·물류 리스크 해소와 내수 활성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주 생필품과 가공식품 등 주요 품목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폭리 및 위조 상품 등 불공정 거래 단속 △주요 축제 시기 바가지요금 점검 등 민생 현상 대응에 나선다. 특히 시는 물가 도미노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경제 안정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제안정반 △에너지 대응반 △교통 대응반 △복지 지원반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 4월 6일~5월 26일까지 총 7회 26시간 과정으로 운영 예정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2026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농업 경험이 부족한 신규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 기술과 농업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4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총 7회(26시간 과정)에 걸쳐 운영되며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교육장과 선도 농가 현장 등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게 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귀농·귀촌 정책 이해 △전환경 토양관리 △작물재배 기초 △농기계 취급 및 안전사용 교

육 △선도농가 현장견학 △농지법 및 토지거래 기본상식 등 신규농업인이 알아야 할 핵심 기초 과정 등이다.

모집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신규·초보 농업인과 귀농인 및 귀농 예정자로 모집 인원은 약 20명 내외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며 전주시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교육생은 오는 23일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시는 교육 수료 후에는 설문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향후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후속 교육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대학생·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전주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접수

전주시 대학생 및 청년들의 등록금·학자금 또는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12일 '2026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전주시는 지역거주 대학생·청년들의 학업 및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고민을 우선 순위에도 두고 작

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을 결정했다.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6학기 이내), 졸업 5년 이내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내 '분야별 정보-교육-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메뉴를 활용해 △온라인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변동 사항 포함) △재학·휴학·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전주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전주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에 확정되면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6월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를 통해 직접 송금처리된다. 최종 선정 여부와 상한 금액은 지원 완료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지원대상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 타기관으로부터 이미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태 기자

# 전주 지역성·동시대성 담은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 전주미술사 정립·연구, 지역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동시대 미술관 조성 목표로 추진

전주시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과 개관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전주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 후속 절차로 작품수집을 위한 심의기구(작품추진·수집심의회위원회) 구성했다.

시는 전주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근현대 중심 지역성과 국제성을 아우르는 글로벌 미술관 조성을 목표로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의기구를 기반으로 미술관 개관 전까지 전주시립미술관의 정체성에 맞는 국내외 근·현대기 작품(한국화, 회화, 판화, 설치, 공예, 서예 등) 100점 이상을 구입 또는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해 나간다.

앞서 시는 그동안 전주시립미술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주미술사 정립 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전주 연고 근현대 작가(전주출생·성장·거주·교육·작품활동 등) 연구와 더불어 120여명의 대표 작가에 대한 작품 해제문(작품에 대한 해설문) 작성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전주 연고 작가 대상으로 기증 중심 작품수집을 우선 추진하되 미술

관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작품 구입을 병행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된 시립미술관 개관 전까지 미술관 등록에 필요한 100점 이상의 소장품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단계별로 확충해 전주미술사 선도작가 작품을 비롯한 한국 미술 대표 작품, 지역성 기반 동시대 작품 구입까지 연차별로 작품수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 어린이와 함께 소방안전문화 확산 6월 12일 전북도청 공연장서 개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어린이들이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4회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참가할 유치부 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어린이들이 소방동요를 합창과 율동으로 표현하며 화재 예방과 안전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경연대회는 매년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참여하며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오는 6월 12일 전북도 소방본부가 주관하고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경연대회는 팀별 15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들이 무대에서 노래

와 율동을 통해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합창 공연'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참가팀은 소방동요뿐 아니라 만화주제곡, 트로트, K-pop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활용해 화재 예방과 생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노래와 안무, 무대 연출을 통해 어린이들이 협동심과 창의성을 함께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교육적 의미가 크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이번 대회에 유치부 대표팀으로 출전할 예정이며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참가팀을 모집해 어린이들이 함께 노래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뜻깊은 무대를 준비할 계획이다.

경연 결과 유치부와 초등부 각 1팀에게 대상이 수여되며, 대상 수상팀은 오는 9월 광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 '폐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지원

## 이상주행 제한장치 전북권 최초 차량지원사업

최근 전국적인 차량돌진 및 폐달흔돈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도내 고령자 대상으로 '폐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12일 추진했다.

'폐달오조작방지장치'는 운전자에 의한 이상 주행을 제한하는 장치다. 주요 기능에는 △운전자 가속페달 오조작 감지 △급가속 제어 △저속주행(15km/h 이하 주행) 도중 RPM 4500 급가속페달 이상 시 제한 장치 등이다. 전북경찰청은 "다양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되는 만큼 도내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폐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전북권 최초 차량지원사업으로 임실군 65세 이상 고령자 총 22대 차량을 선정해 진행했다. '폐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동참,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에서 마련됐다.

경찰은 앞으로 '폐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차량에 한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와 더불어 고령자 대상 '실버카(전동휠체어) 안전조명등' 설치 등 안전용품 배부 및 교육·홍보를 병행해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간담회 개최

###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유관기관 협력체계 가동 및 권익 보호

전주시는 12일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 위한 전문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이동노동자들이 업무 중 겪는 직무 스트레스와 산업재해, 안전, 복잡한 세금 문제 등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

주세무서,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 전북근로자건강센터,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북도노동권익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유관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 발표

## 농식품부, 유통·소비 농가 생활영역까지 정책 범위 대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개최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농업과 농촌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보다 경쟁력 있는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전략은 유통, 소비, 농촌 주민의

생활 영역까지 정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 선도 농가 중심의 기술 보급을 넘어 영농 규모나 여건에 소외받지 않고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인공지능(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전략은 ‘인공지능(AI)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입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 비전으로 설정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 생산성 혁신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를 설정하고 1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먼저 (생산+) 더 쉽고 편하게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 체질 개선 경영 규모와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농가가 인공지능(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 농업AX플랫폼’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 농장(AI-Farm)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노지에서 지능형 농기계와 드론으로 농사짓는 무인 자율화 프로젝트(가칭NEXT Farm)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다.

(유통+)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농산물의 산지 유통거점인 스마트 APC(2030년까지 300개소

조성 목표)의 입고, 선별, 출하 등 공정 과정에 인공지능(AI) 적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거래에 특화된 물류체인을 시범적으로 올해 3개소 구축한다.

(농촌+) 농촌 주민에게 생활 밀착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 및 매력적인 농촌으로 전환. 2030년까지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농촌생활권’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R&D 확대와 거버넌스 정비를 통해 AX 생태계 기반 구축,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농업·농촌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뒷받침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정소민 기자



<사진=무주산림조합>

## 무주산림조합, 산림재해 예방안전기원제 개최

### 봄철 산불조심기간 맞아

무주군산림조합(조합장 박철수)은 지난 11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및 산림재해 예방과 안전 한 산림환경 조성을 기원하기 위해 덕유산 향적봉에서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무주군 산림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참여해 산불 예방 의지를 다지고 산림재해 없는 한 해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무주군 산림복지과, 무주국립관리소, 덕유산국립공원, 무주군자율방재단, 무주군산림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불 예방 결의를 다지고 안전기원제를 진행했다.

특히 덕유산 최고봉인 향적봉에서 진행된 이번 기원제는 산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지역 산림을 산불과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무주군 노창환 부군수는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관 간 협력과 군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불 예방 활동과 주국유림관리소, 덕유산국립공원, 무주군자율방재단, 무주군산림조합

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 신협중앙회 전북본부, 신임 허동욱 본부장 부임

## 2004 신협중앙회 입사 IT개발본부 본부장 역임



허동욱 본부장

를 사업·실현 중심으로 전환하고 조합 지원조직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허동욱 본부장 2026.03.16일부터 전북신협 70개 신협을 이끌게 된다.

허동욱 본부장은 1969년 전남 담양군 출신으로 20여년간 신협중앙회 IT분야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4년 신협중앙회에 입사해 계정계 개발팀, 팀장, 정보계개발팀 팀장, 품질관리팀 팀장을 거쳐 IT개발본부 본부장을 지냈다.

허 본부장 성품은 차분하고 합리적 추진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 허 본부장은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금융경제학 석사를 마쳐 현금흐름분석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는 전북지역본부가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신성장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수립 시에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것을 예고한다.

허동욱 본부장은 “포용금융 선두주자 전북신협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전북지역본부는 전북신협이 대외환경에 유연히 대응하는 금융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농진청 ‘공무직 노동자 소통-공감 교육’ 마련

## 조직 활력 제고 협력적 직장 문화 조성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무직 노동자 소통-공감 교육’을 3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속 연구기관 공무직 노동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은 조직 활력 제고와 협력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동반자

로서 소속감을 높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공무직 노동자 7000여명이 7회에 걸쳐 교육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첫 회 교육생 만족도가 4.86점(5점 만점)을 기록하며 매우 높았던 점을 반영해 올해에는 원거리 지역 기관의 공무직 노동자까지 교육 기회를 넓혔다.

먼저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을 비롯해 평소 교육 기회가 적었던 강원도 평창군 소재 3개 기관, 충북 음

성 인삼특작부, 경남 밀양 발효물개발부를 찾아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내용은 △자존감을 높이는 꿀팁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의 특징을 주제로 한 특강에 이어 직장 내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집단(그룹) 활동,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게임으로 배우는 소통 기술 △게임으로 배우는 갈등·협상·중재 기술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비전 만들기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참여형

프로그램 위주로 교육해 교육생들의 현장 적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본청과 소속 연구기관에 연구원, 포장·온실 관리, 사육사, 행정실무, 시설관리·청사 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총 2,700여 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공무직 근로자가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협력적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농진청>

## 전북농협, 김제 광활 시설감자 생육상황 점검

### 5월 중순까지 수확 예정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과 광활농협(조합장 임영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김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김제 광활면을 방문해 본격 출하에 앞서 봄감자 생육동향 등을 점검했다.

김제시 광활면 지역은 전북도내 시설감자 최대 주산지다.

생산되는 감자는 간척지 토양의 풍부한 미네랄과 서해의 해풍 등 감자 생육에 천혜의 조건을 갖춰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포실포실한 밤 맛이 나 전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3월 중순경 첫 수확을 시작하는 광활감자는 5월 중순까지 수확이 이뤄질 예정으로 260여 농가, 약 610ha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다.

전국 봄감자 30%이상을 차지해 서울 가락동 시장, 농협하나로마트 등 전국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임영용 조합장은 “농가들을 위한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과 감자 재배기술 교육을 통해 전국 시설감자 최대 주산지의 명성에 걸맞은 고품질 감자를 생산해 농가소득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이상 기후와 영농비 상승으로 인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수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업인들께 감사드리다”며 “전북농협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농심전심’의 뜻 아래 농산물이 제값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북광역지원기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토론회’

## 기본계획 수립 논의

전북광역지원기관(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전북도내 13개 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이다.

이 자리에는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사를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 등 약 6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전북 시·군 농촌공간계획 활성화를 위한 당면 과제와 추진 방향성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 진행된 종합토론회는 전북대학



<사진=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교 순재권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농촌 재생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 등이

제시됐다. /김영태 기자

## 전북은행 시니어 특화 ‘장승로지점’ 리뉴얼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시니어 고객들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주 소재 ‘장승로지점’을 시니어 특화 영업점으로 새 단장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상품 리플렛을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리뉴얼 오픈을 마친 장승로지점은 고령층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니어 특화 점포다.

일반적인 영업점과 달리 고령층 고객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휴게 공간을 확충하고, 자동화기기 구역에 안전바 설치, 고객이 창구와 화상실 등을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컬러 유도선을 표시해 직관적인 동선을 구축하는 등 시니어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장승로지점은 전북은행의 ‘예금전문영업점’으로서 복잡한 대출 업무 대신 예·적금 관리에 집중하며, 타 예금전문점과 차별화해 ‘실버주택연금대출’ 상담 및 취급 기능을 강화했다.

또 전북은행은 이번 공간 리뉴얼에 맞춰 시니어 고객이 금융 상품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니어 추천상품 리플렛’을 별도 제작해 영업점 방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서도 지역 거점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전북은행은, 이번 장승로지점 특화 운영을 통해 오프라인 창구 이용이 높은 시니어 세대의 금융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상생 금융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발명진흥회 전북지부 ‘AI 활용 IP창업교육’ 성료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지부장 윤정호) 전북지식재산센터는 12일 ‘AI 활용 IP창업교육(IP창업존 제54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교육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아울러 교육생 창업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AI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이론·실습) △IP창업 브랜

드 개발 AI 활용법 △IP창업을 위한 특허 연구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아이템 강한 특허권 확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과정을 통해 AI 활용한 브랜드 개발 방법과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이론·실습) 및 예비창업자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창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수요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추후 IP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권리와 및 아이디어 행사와 지원사업 선정될 경우 자부담금이 면

제된다.

아울러 ‘IP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권리와 지원사업’은 3월 중 모집공고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윤정호 전북지부장은 “AI 기술과 지식재산은 접목한 IP창업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경쟁력을 한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후속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도-경진원, 제5차 무역사절단 참여기업 모집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5차 무역사절단(태국, 인도네시아)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무역사절단 사업은 참여하는 기업에게 현지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장 제공과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상담, 통역비 지원, 1사 1인에 한해 항공료 50%를 지원한다.

전북 수출국가 상위권인 태국은 아세안 국가 경제대국으로 현지화한 한류 소비 파급효과가 큰 국가로 생활소비재 등 품목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젊은 인구 구조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최대 소비시장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할랄(Halal) 시장의 규모가 크고, 관련 소비·유통·인프라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전북 기업의 수출 진출에 있어 매우 유망한 잠재 시장으로 평가된다.

제5차 무역사절단(태국, 인도네시아) 참여기업 모집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15개사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핵심 시장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무역사절단을 통해 기업들이 현지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전북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https://www.jbexport.or.kr/index.do>)을 확인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 개최

## 16일부터 접수 시작 초등생 ‘AI 활용 학교 홍보영상’ 분야 신설

전북교육청은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관하는 대회로 개인이나 팀(최대 3명) 단위로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대회는 학생과 일반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AI 활용 학교 홍보영상’ 분야는 초등학생,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

는 중·고등학생 및 성인(대학생, 교직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AI 활용 소속학교 홍보영상’ 분야가 신설됐다. 참가자는 이미지와 영상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소속 학교의 매력을 알리고 자랑하는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 된다.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 참여한 중·고등학생 및 성인 참가자는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생활, 학습, 안전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AI 기반 서비스 및 아이디어 기획을 제안하면 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팀

(최대 3명)은 오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식 누리집(data.edmgr.kr)을 통해 작품 제작에 필요한 생성형 AI 플랫폼 이용권을 신청(이용권은 수량이 한정돼 있어 조기 소진 될 수 있음)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제공된 이용권과 맞춤형 교육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해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작품 접수 및 제출은 AI 이용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가능하다. 출품은 1차 서면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 2차 전문가 발표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 /정소민 기자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 포스터 <사진=전북교육청>

## “스쿨팜에서 농업·농촌 소중함 배워요”

전북교육청 ‘스쿨팜’ 지원 전북교육청이 학교 내 ‘스쿨팜’ 조성을 지원한다. 12일 전북교육청은 ‘2026년 스쿨팜’ 참여 학교로 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등 총 25개교를 선정·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전북교육청, 전북도, 전북

농협, 전주·군산·익산 3개시 협력 사업으로 올해 전주 5개교·군산 8개교·익산 12개교에서 운영한다. ‘스쿨팜’은 학교와 농장의 합성어로 학생들이 작물을 기르고, 지배하고, 조리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배우고, 도시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정소민 기자

## 군산학생교육문화관, 도서관 주간 행사 운영

18개 강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산학생교육문화관은 도서관의 날을 맞아 3월 말까지 도서관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 행사는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열림’ 주제로 18개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언제나 다정 죽집’의 저자인 △우신영 작가 초청 강연이 있다. 또 △‘행운의 말을 찾아라’ 이벤트 △ ‘나만의 킴 만들기’ 원데이 체험 △도

서관 필사 공간을 활용한 ‘내가 바로 도서관 피카소’ 등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이어진다. 본관과 대야분관 연계 행사인 △‘도장 깨기 투어’는 이용자들이 평소 가지 않았던 곳을 새롭게 방문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분관에서 운영하는 △‘빛의 조각, 자개 그림책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다. 자세한 내용은 회관 누리집(https://lib.jib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익산시, 드림 패럴림픽 3년 연속 선정 ‘전국 유일’

## 장애 인식 개선 교육·스포츠 체험 운영

익산시가 드림 패럴림픽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며 장애인체육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익산시장애인체육회(회장 정현을)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드림 패럴림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4개소가 선정됐으며,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익산시와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추진해 온 장애인 체육 활성화 정책과 사업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드림 패럴림픽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휠체어 배드민턴, 골볼 등 장애

인 스포츠 체험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와 패럴림픽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포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익산반도체체육센터의 우수한 시설을 활용해 전문 강사를 배치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익선=최준호 기자

프로그램 구성과 준비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드림 패럴림픽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인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며 장애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 환경을 조성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선=최준호 기자

# 전북현대 N팀, 완주공설운동장서 홈 개막전

## 대전코레일 상대 시즌 첫 승 도전

전북현대모터스FC N팀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완주공설운동장에서 대전코레일FC와 2026 K3리그 홈 개막전을 치른다. N팀은 올 시즌 개막전에서 경주한수원축구단과의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 패하며 시즌 첫 승을 다음 경기로 미뤘다. 이번 홈 개막전을 통해 시즌 첫 승과 함께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N팀은 젊은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향후 전북현대 A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구단 선수 육성 시스템의 핵심 팀이다. 특히 N팀은 선수들이 꾸준한 경기 출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K2·1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권순형 감독을 비롯해 정다원 코치, 이정우 피지컬 코치가 새로이 팀에 합류하며 팀을 재편했다. 골키퍼 코치는 지난 시즌 A팀 골키퍼를 지도했던 황희훈 코치가 맡는다. 2026시즌을 앞두고 K2리그 경험을 갖춘 선수들을 중심으로 전력을 보강했다. K2리그에서 임대 경험을 쌓고 복귀한 김하준과 김준영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팀 전력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주FC에서 활약한 김영환과 천안시티FC 출신 이상명, 최진용 등이 합류하며 팀 경쟁력을 강화했다. 상대 팀인 대전코레일은 지난 2025 시즌 K3리그에서 14승 7무 7패를 기록하며 리그 4위를 차지한 강팀이다. 전북현대 이도현 단장은 “N팀은 젊은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통해 성장하



<사진=전북현대> 고 A팀 무대에 도전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팀”이라며 “홈 개막전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새로운 시즌의 시작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역량강화연수개최

전북교육청은 ‘2026년 상반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연수는 오는 16~2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장학사와 업무별 담당 교사, 특수학교 담당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분청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2026년도 특수교육 정책 방향과 연계한 현장 중심 연수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센터 역할 특성화와 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반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요 업무 안내를 비롯해 △전입 교사 연수 △거점센터 운영 △장애 학생 인권지원 등이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올해 특수교육기관 확충,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지원 강화, 협력기반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전북특수교육원 설립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 /정소민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블루리본 서베이 연계 미식자원 개발

올해 말까지 50선 추가 선정 을 공유하는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시간이 마련됐다. 한 업체 대표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아이디어를 함께 재단과 공유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전북의 미식 자원이 더 많은 관광객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지역의 대표 미식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장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북의 지역 미식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광 콘텐츠로 확장해 서부내륙권 미식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미식기행 관광상품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전북 대표 미식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블루리본 서베이의 평가 기준을 참고해 더욱 공신력을 갖춘 미식 관광 콘텐츠로 고도화할 방침이며, 재단은 올해 말까지 추가로 50선을 선정해 ‘전북 대표 미식자원 100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 정읍시, 고향사랑기금으로 '공유어린이집' 본격 추진

정읍시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어린이집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관내 45개 어린이집을 7개 권역으로 묶고, 이들이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별 어린이집의 규모와 여건에 따른 보육 격차를 보완하고 모든 원아에게 균형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권역별로 연간 600만원씩, 총 4200만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각 권역은 상·하반기에 걸쳐 총 400만 원의 예산으로 딸기 수확 체험, 농장 견학, 창의 오감 체험 놀이 등 다채로운 특색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육 교직원 의 역량 강화와 부모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시는 이번 공유어린이집 사업 도입이 어린이집 간의 원아 모집 경쟁 등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상생하는 지역 보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소중하게 모인 고향 사랑기금을 통해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선물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낮추고 보육 서비스의 품격을 높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공부의 명수' 온라인 튜터링 1기 18일까지 접수

군산시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공부의 명수' 온라인 튜터링 1기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부의 명수'는 군산시가 운영하는 공공 학습 플랫폼으로,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진도에 맞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높이고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실시간 학습 질문방 운영을 종료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던 '온라인 튜터링'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또한 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학습 지원망을 구축했다.

'온라인 튜터링'은 교과 학습을 중심으로 온라인 1:1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전·현직 교원과 연계해 체계적인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튜터링 1기 참여 학생 모집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중학생 150명과 고등학생 50명 등 총 200명을 선발한다. 중학생은 주 2회반(50명)과 주 1회반(100명)으로 구분 모집하며 공부의 명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귀금속 명장 기술 잇는다...청년 후계자 양성

익산시가 지역 귀금속·보석 산업의 기술 전수와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다.

익산시는 귀금속·보석 숙련기술인과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기술 전수 프로그램 '익산형 귀금속·보석 숙련기술인 후계자 양성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귀금속·보석 산업을 이끌어 온 숙련기술인의 경험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전통 세공 교육 5개월과 CAD 설계 교육 5개월로 나눠 숙련기술인 멘토와 청년 멘티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된다.

시는 지난달 공개 모집을 진행한 뒤 이달 심사를 거쳐 멘토 2명과 멘티 4명을 선발했다. 멘토는 전통 세공 분야 백경동 명장과 디자인 설계 CAD 분야 가승훈 기능장이고, 멘티는 귀금속·보석 분야 전공 또는 관련 경력을 가진 청년들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기술인을 육성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IAEc 우수교육도시 '선정'

## 찾아가는 평생교육 행복학습센터 운영 성과 높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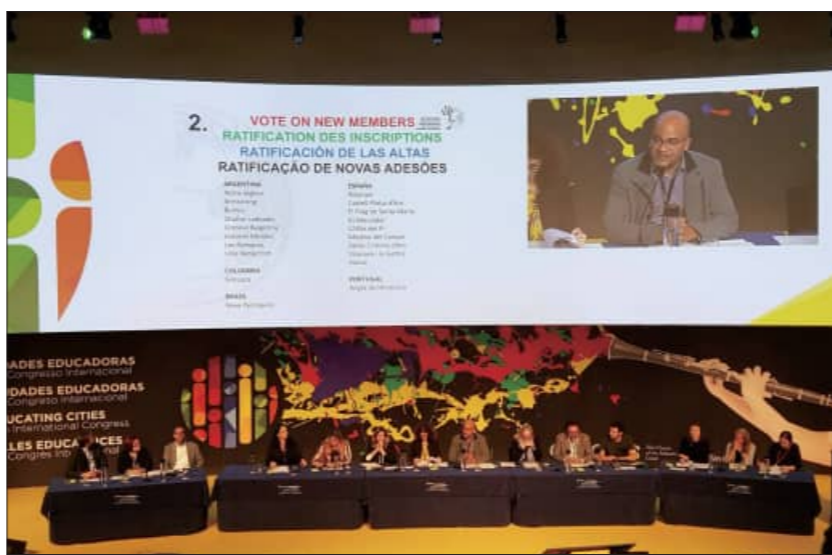
군산시가 평생교육 관련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불리는 국제교육도시연합(이하 IAEc)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IAEC는 지난 11일 해당 누리집www.edcities.org를 통해, 대한민국 군산시를 세계 10대 우수교육도시로 선정하였으며, 오는 5월 29일 스페인 그라노예르스시에서 개최되는 제18회 IAEc 세계총회 시상식에서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여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IAEC 우수교육도시상은 'Education as a Source of Inclusion and Social Cohesion'(포용성과 사회적 결속으로서 평생교육)이라는 국제교육도시연합의 정신에 부합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한 도시에 수여된다.

군산시는 전 세계 38개국 492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에 참여했으며, IAEc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및 평생교육 분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심사위원단의 세 차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군산시는 브라질 삼파울루와 함께 선정됐으며,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10대 우수교육도시에 이름을 올렸으며, IAEc 회원도



IAEC세계총회모습(2018년도자료사진)

<사진=군산시>

시 중 유일하게 2018년에 이어 2회 수상이라는 신기록도 세웠다.

IAEC 사무국은 군산시의 '찾아가는 평생교육 사업'을 주요 선정 이유로 꼽았다. 군산시는 행복학습센터 사업과 동네문화카페 사업 등 다양한 학습형 일자리 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해 왔다.

특히 조선·제조업 위기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과 애乡심을 높이는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세계 최대 평생교육 관련 국제기구인 IAEc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간 협력과 연구를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됐다. 현재 전 세계 38개국 492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군산시는 2008년 IAEc에 가입한 이후 2010년 IAEc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를 개최했으며, 2018년에는 IAEc 최우수도시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 평생교육 네트워크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IAEc 우수교육도시상 수상은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도시'를 목표로 꾸준히 추진해 온 평생교육 정책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과 나눔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 '가속'

## 반부패 시스템 정비 등 4대 중점 과제 선정

정읍시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과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12일 이학수 시장 주재로 '반부패 청렴추진단 운영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맞춤형 청렴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기존 정책들을 재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이끌어갈 중점 과제로 반부패 시스템 정비, 공직

내부 청렴 문화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 등 4대 분야를 선정했다.

먼저 반부패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 주관의 추진단 운영을 정례화하고 부패영향평가와 제도 개선 이행을 한층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와 감찰·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해 건 강한 조직 문화를 다질 계획이다. 전 직원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강화와 청렴 토크콘서트, 공직기강 감찰 활동 등을 통해 공직 사회 내부의 청렴 의식도 끌어올린다.

시민 참여와 취약 분야 감시도 대폭 확대한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청렴 원정대'를 신규로 운영하고, 건설 관련

단체와의 정기 간담회 및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건설과 계약, 보조금 등 부패 취약 분야는 수의계약 총량제와 보조금 중복 수혜 방지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렴 위험 업무 의무 순환제와 전략적 감사를 통해 부패 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유지하며 다져온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정읍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 발굴해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1등급 도약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15개 읍·면 '소통 시계' 가동

## 정현울 시장, 생활 불편 등 주민들과 '쌍방향 소통'

익산시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담기 위해 '소통 시계'를 다시 돌린다. 시는 지난 1월 동 지역 방문에 이어, 12일부터 15개 읍·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행보에 나섰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정현울 시장이 15개 읍·면 구석구석을 돌며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시 운영

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히 민원을 받는 것을 넘어, 우리 동네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사업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쌍방향 소통'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일정 첫날인 합영읍과 춘포면 방문에서는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다.

주로 주차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거나 낡은 도로를 고치고 안전 울타리(가드레일)를 세워 달라는 등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 불편 사항들이 논의

됐다. 시는 이번 일정이 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현장을 돌며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변화를 향한 기대를 생생하게 확인하겠다"며 "주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시장의 최우선 순위로 검토해 실제 정책 변화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추진

## 연 최대 20만 원 지원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군산시는 19~20세 청년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신청·발급받은 뒤 협력 예매처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연극·뮤지컬·클래식·국악·콘서트 등 공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20세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예매처를 기존 2개에서 7개로 확대해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김영효 문화예술과장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소비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더 많은 청년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관세음응험기' 번역서 발간

백제 무왕 익산천도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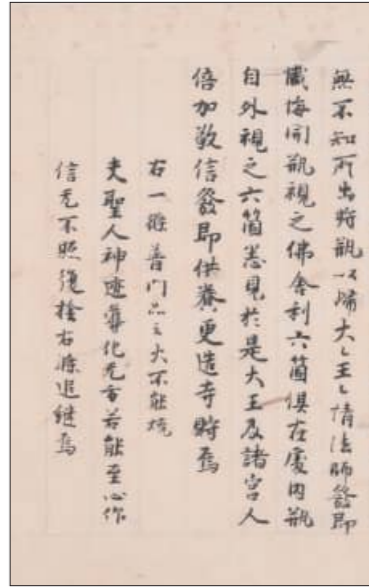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 기록이 담긴 고문헌 '관세음응험기' 번역서가 발간됐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 문화연구소는 일본 교토 쇼렌인(청련원, 靑蓮院)에 소장된 고문헌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 번역 연구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서는 지난해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백제 익산 천도의 역사적 근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 추진한 '관세음응험기 번역·연구 프로젝트'의 최종 성과다.

관세음응험기는 11세기 후반(1073~1084년경) 일본 승려 료유(良祐)가 필사한 문헌으로 △관세음응험기 △수광세음응험기 △세관세음응험기 등 세 종류의 관세음보살 영험담과 백제 관련 부록 2편 등 총 88편이 수록돼 있다.

특히 부록에 실린 '제석사(帝釋寺) 화제' 기록에는 "백제 무왕왕이 익산으로 천도했다(百濟 武王王 遷都 枳慕蜜地...)"는 내용이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익산시>

국내 고대 사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익산 천도 기록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 문헌은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적 위상을 문헌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번역 연구서 발간을 통해 해외에 남아 있는 백제 관련 고문헌을 국내에 소개하고 해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백제왕도 익산과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내달 3일 '2026 벚꽃축제' 개막

공연·먹거리 풍성

정읍시가 올해로 35주년을 맞는 지역 대표 봄 축제 '2026 정읍 벚꽃축제'를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정읍전 어린이추구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에는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40여 개의 다채로운 부스가 운영된다. 기존의 간식·디저트, 푸드트럭 외에도 지역 베이커리가 직접 참여하는 특화 빵 부스가 별도로 마련돼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 벚꽃축제는 무대 공연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와 체험 요소로 꼼꼼하게 준비했다"며 "수많은 방문객이 정읍전 벚꽃길에서 봄의 정취와 다채로운 문화를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미래 전략 대응 위한 조직 재설계

행정 효율성 강화

군산시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복합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재설계에 나선다.

시는 12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부시장, 국·소장 및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군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수행한다.

그동안 군산시의 조직개편이 자체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한 직제 조정 중

심이었다면, 이번 용역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핵심 전략 중심의 조직 재설계'를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설명회와 그룹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안과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용역은 군산시 미래 전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부서 간 이해관계를 넘어 시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회안전망 강화'

익산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익산에 주소를 둔 시민은 누구나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익산시가 전액 부담하며, 익산시민이라면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구서 서식과 구비서류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내 분야별정보산서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최

대 3,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 2,000만 원 및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3,000만 원 및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등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 및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10만 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포츠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3,0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청구서 서식과 구비서류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내 분야별정보산서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최

# 부안군,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착공'

### 18홀 규모 골프장 67실 호텔 조성 착수 관광 인프라 본격 구축

부안군과 대일변산관광개발(주)은 12일 부안영성테마파크 잔디광장에서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024년 8월 변산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으며 이달 골프장과 호텔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군과 대일변산관광개발은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18홀 규모의 골프장 및 67실의 호텔 조성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격포 지역을 중심으로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일시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개최된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착공식 <사진=부안군>

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착공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호석 대일개발그룹 회장,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각계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착공식은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관광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

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석 회장은 "오랜 준비 끝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름다운 변산반도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시설을 조성해 부안이 쾌적한 해양 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

## 부안 개암동 벚꽃축제, 내달 '팡파르'

4월 3~5일 개최

상사개암동벚꽃축제추진위원회는 부안군의 대표 봄꽃 축제인 제 8회 개암동 벚꽃축제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상서면 개암동 벚꽃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꽃비 내리는 날, 개암동에서 만나요'라는 슬로건으로 개암동을 찾는 상춘객 봄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비록 규모가 작은 소규모 마을축제이지만 매년 2만 5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봄꽃 축제이다.

올해 축제는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는 '벚꽃 문화공연 프로그램',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된 '푸드존',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푸른하늘 힐링센터 '벚꽃 힐링센터', 벚꽃과 함께 사진찍기 좋은 '포토존', 상서면 '로컬푸드 특산물 판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분과별 추진위원회에서는 다채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계획한 콘텐츠 준비를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기현 추진위원장은 "풍성한 축제가 되기 위해 벚꽃 문화공연 프로그램, 푸드존,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차별 없이 준비하고 있으니 올봄 개암동 벚꽃길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꽃길 걸으며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 김제시, 학교밖청소년원예치료사 자격취득 통한 진로역량 강화

김제시는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예치료사 2급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예치료사 2급 과정은 김제학생교육문화관 교육복지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식물을 매개로 한 원예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기표현 능력을 기르고, 자격 취득을 통해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원예치료의 기초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2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5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 수료 후에는 자격검정을 통해 원예치료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 또래 관계 향상 등 청소년 성장과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

이유미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청소년기에 식물을 통한 치유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정서 안정뿐만 아니라 자기표현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예치료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성취감을 얻고, 진로 탐색과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군, 환경개선부담금 3509건·1억 600여만원 부과

부안군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관내 경유 자동차 3509건에 대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억 6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은 2025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동안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분납금이다.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은행납부(고지서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 고창군, 귀농귀촌과 지역민 유대강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전북 고창군이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모임 형식의 프로그램과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귀농귀촌 동아리 지원사업'을 운영해 지역 내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돕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경험과 기술을 지역 사회에 나누는 재능기부 지원(노후전문 교재, 소규모 수리)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귀농귀촌 동네작가' 사업도 모집하고 있다. 선발된 동네작가들은 마을 소개와 귀농귀촌 사례, 지역 문화·관광지 등을 취재해 정제에 필요한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25년 한 해 동안 고창군에는 총 1360명이 귀농귀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창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심택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택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택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고창군>

## 고창군 '고창수박 명품화' 위한 자문단 위촉

고창군이 '고창수박'의 지리적표시 등록 2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 고창 명품수박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단은 수박 재배기술과 브랜드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5명으로 꾸려졌다.

자문위원들은 명품수박 생산 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심사, 프리미엄 수박의 고가 브랜드화 및 유통 전략 마련, 생산자 조직화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기술 자문을 수행하며 고창수박 명품화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 직후, 자문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첫 자문회의를 열고 고창수박 명품화를 위한 기술적 자문을 진행했다.

앞서 고창수박은 2024년 9월 20일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6호로 등록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수박에 대해 '지리적표시 고창 명품수박' 브랜드로 판매될 예정이다.

오성동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창 명품수박 자문단의 전문적인 진단과 대안 제시를 통해 고창수박 명품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수박 브랜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6개 면 거점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6년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농촌 거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 기반의 생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6개 거점센터인 공덕두루누리화력센터, 금산문화복지센터, 금구문화복지관, 용지향도빛나눔센터, 백산누리센터, 죽산아리리요나눔터에서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요가, 난타, 공예, 제과제빵, 캘리그래피, 생활체조, 기타, 스포츠댄스, 풍물, 실버인지오리 등 문화·건강·취미 활동이 진행된다. 주민 수요조사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연간 2,000명 이상 주민 참여가 예상된다.

또한 거점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해 배후마을 생활서비스도 확대한다. 죽산면, 백산면, 금산면 배후마을 10개소를 대상으로 공예 및 푸드 프로그램과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거점센터 중심의 생활서비스가 주변 마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생기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어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농수산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여 시장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사업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현재 장어 도매 가격은 1kg당 1만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귀농창업·주택자금 49억 확보

### 영농 기반 구축 등 전북 최대 규모 지원

김제시는 올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가운데 최대 규모인 4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 창업과 주거 기반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서류검토를 거쳐 면접심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20명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귀농인은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해 영농 기반 구축, 농지 및 시설 확보, 주택 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시는 귀농 희망자의 높은 관심 속에 전북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김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군, 통합돌봄사업 지역특화서비스 추진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민관 협력 체계 강화

고창군이 '통합돌봄지원사업(3월 27일 전면시행)' 일정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통합돌봄사업 지역특화서비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특화서비스는 기존 국가 돌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를 촘촘히 보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창군은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돌봄 안전망

을 완성할 방침이다. 우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시행한다.

퇴원환자를 통합돌봄 체계로 연계 시 병원에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달중 관내 병원들과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주거환경 개선과 병원 동행, 목욕 및 미용 서비스 이동 지원 서비스는 세부 계획 수립을 마치고 4월중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고창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인 '통합돌봄 서포터즈'와 연계한 이

불 세탁 서비스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은 이러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가사 부담을 덜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특화서비스는 기존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 복지 자원을 보충 및 연결해 촘촘한 그물망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외되는 이웃 없이 살던 곳에서 돌봄이 이어지는 고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의회, 13개 읍·면 현안 청취 나서

###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읍·면별 주요 현안과 지역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읍·면별 주요 현안과 지역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1일 동진면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기간 중 4일간 관내 13개 읍·면을 방문해 읍·면 현안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읍·면 현안 청취는 각 읍·면을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지역 현안을 보고받고 민원 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박병래 의장은 "읍·면은 군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인 만큼 지역의 현안과 의견을 정확히 살피는



부안군의회, 읍면 현황 청취 <사진=부안군의회>

것이 중요하다"며 "각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

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 순창장류축제, 세계 무대 도약 '발판'

### 문체부 '예비 글로벌 축제' 선정 국비 2억5천 지원 경쟁력 강화 발효문화 체험·야간 콘텐츠 확대

순창군 대표 축제인 순창장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예비 글로벌 축제에 선정되며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글로벌 축제 3개, 예비 글로벌 축제 4개를 선정했으며, 순창장류축제가 예비 글로벌 축제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올해 국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서면평가, 해외 인지도 조사, 발표평가 등 단계별 심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순창군은 지난 3월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발표평가에서 순창장류축제의 글로벌 성장 전략과 발효문화 관광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순창군>

순창장류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발효 식품인 고추장·된장·간장을 주제로 한 전국 유일의 장류 특화 축제며, 2006년 제1회를 시작해 2014년부터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됐으며 올해 제21회를 맞이했다.

군은 이번 예비 글로벌 축제 선정에 계기로 외국인 참여형 장 담그기 체험과 'K-sauce 미시 마스터클래스' 등 글로벌 홍보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여행 플랫폼(OTA) 연계 홍보 등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연계 추진해 축제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또한 야간 미디어파사드와 공연, 야간 장터 등 체류형 야간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빈집 재생 스테이 등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축제의 체류 시간을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국어 스마트 안내체계 도입, 발효서를 운영,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홍보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여행 플랫폼(OTA) 연계 홍보 등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연계 추진해 축제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 '다운', 전북 넘어 지리산권 산모 첫 입실

### 전남 구례군 산모 처음 입소 산후케어 '지리산권 거점'

남원시가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다운'에 전북도를 넘어 지리산권 산모가 처음으로 입소하며 지역 거점 산후조리 시설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 1월 첫 산모 입실 이후 '다운'은 산모와 신생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용 산모 만족도 조사에서는 감염관리 10점, 시설·청결 및 여행 플랫폼(OTA) 연계 홍보 등을 기록했으며, 산모 건강 회복과 육아 준비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었다. 남원시는 지리산권 유일의 분만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분만 취약지 해소와 공공 산후케어 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리산권 시·군 산모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준비해 왔다.

그 결실로 최근 전남 구례군 산모가 처음으로 입실해 서비스 범위가 전북을 넘어 지리산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맞이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다운'이 전북과 지리산권 산모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산후조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남원시가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남원우체국(국장 오정수)과 현장 밀착형 행정에 나선다.

시는 12일 시청에서 남원우체국과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집배원이 정기적으로 위기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의 위기 상황을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는 지역 내 고립 위험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총괄하며, 남원우체국은 집배원을 통한 방문 안부 확인과 현장 위기 징후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5월부터 집배원들은 2주 단위로 대상 가구를 방문해 건강, 주거, 위생 등 생활 전반을 점검한다. 시는 집배원이 작성한 점검표를 바탕으로 위기 징후 발견 시 즉시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사례 관리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운봉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뇌경색으로 방 안에 쓰러져 있던 70대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는 이 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추경예산안 의결

### 추경 9100억 규모 편성 선거법·도시가스 건의 채택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주갑)는 이번 회기 동안 8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인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규성)는 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시·군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기간 차등 규정 개정을

추구하는 건의안은 심부진 의원이, 전북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이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해 각각 원안 가결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중기)는 3월 11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100억 4,332만 2천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 8,611억 7,748만 6천원, 특별회계 488억 6,583만 6천원이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예산안을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해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 기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드론 실증도시' 4년 연속 선정 쾌거

### 국토부 공모 드론레저 분야 선정 국제연맹 본부 남원 설립 추진

남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드론 레저스포츠 분야에 최종 선정되며, 전국 최초 4년 연속 선정이라는 전무후무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K-드론 레저스포츠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남원시는 올해 드론 레저스포츠의 국제적 저변 확대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세계 각국의 대표 리그들과 연맹을 구성하고 국제드론레이싱연맹(FIDRA) 본부를 남원에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 규정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공정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K-드론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고, 누구나 즐기는 드론 스포츠 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시는 지난해 '제1회 국토부장관배 DFL 드론레이싱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드론 리그 대표들과 국제 세미나를 여는 등 꾸준히 글로벌 기반을 닦아왔다.

국산 드론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수요 창출을 위한 시민 참여형 사업도 본격화된다. 시는 '찾아가는 드론교실' 연계 관내 학교와 복지관을 대상으로 국산 드론 기체 교육과 드론 스포츠동호회 육성을 지원한다. 지난해 15개 기관에서 2,2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산 기체를 도입해 교육 계층을 확대하고 '드론 스포츠동호회 대회 참가 지원사업'을 신설해 일상 속 드론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남원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남원국제드론제전' 누적 관람객 58만 명을 기록하며 산업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경제 모형을 제시했다. 산업 생태계 조성 역시 LIG넥스원과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방산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국산 부품 제조기업인 ㈜볼로랜드와의 MOU 체결도 앞두고 있어 제조부터, 실증, 레저가 결합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둘째까지 양육비 지원...다자녀 부담 덜다

### 다자녀 가구 매월 10만원 지급 둘째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완주군이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 자녀까지 범위를 넓혀 매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강화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구다. 셋째 이상 자녀는 기준과 동일하게 6세부터 9세까지 지원을 유지하며, 둘째 자녀는 올해부터 연도별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지난해 2015년생(9세)을 시작으로, 올해는 2016~2017년생(8~9세) 둘째 자녀가

지 혜택을 받는다. 이어 2027년에는 2017~2019년생(7~9세), 2028년에는 2018~2021년생(6~9세)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가정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2026년 제1차 재난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안전관리계획·관리 공시안 심의 벚꽃축제·군민의날 안전대책 점검

순창군은 지난 11일 군청에서 지역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제1차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조광희 순창부군수를 비롯해 순창소방서, 순창경찰서, 순창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순창군 안전관리계획(안) △2025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안) △제23회 육천골벚꽃



<사진=순창군>

축제 안전관리계획(안) △제64회 순창군민의 날 안전관리계획(안) △제2회 순창 참두름 여행 안전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지역 대표 행사와 축제 개최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

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재난은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순창-담양농협 '천리마 기운' 고향사랑 상호기부

순창군과 담양군 농협군지부는 12일 고향사랑기부금 총 1,002만원을 상호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신종철 농협 순창군지부장, 이광재 농협 담양군지부장, 설득환 순창농협 조합장, 담양군의 김상용 금성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하여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두 이웃 인접 지자체 간 상생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순창군과 담양군의 각 농협 군지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여 순창군에 500만원, 담양군에 502만원, 총 천 이만원을 기탁했다.

이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 '하루 천 리를 달리는 천리마(千里馬)의 기운'을 담아 양 지역의 지속적인 상생 발전을 기원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탁식은 지난해 11월 순창군과 담양군의 '농협 군지부 및 관내 14개 농축협' 모두가 참여해 체결한 자매결연에 따른 상생 교류협력 강화 차원에서 순창군과 협력하여 마련됐다. 양 지역의 군지부 및 참석 농협은 전북 순창군과 전남 담양군의 상생 교류협력 활성화를 기원하는 '말 조각상 기념패'를 순창군에 기증하며, 한마음으로 상생발전 추진 의지를 다졌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에너지 취약계층 162가구 주거환경 개선

완주군이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 노후 보일러 및 에어컨 교체 등을 지원해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과 사용량 절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단열 △창호 △보일러(건식패널) 시공 △노후 보일러 교체 △에어컨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주택

개보수 공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이며,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공공임대주택 및 불법건축물 거주자, 최근 2년 이내 동일 사업 수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완주군 지원 물량은 총 162가구로, 냉방 분야 32가구, 난방 분야 130가구를 지원하며 한국에너지재단이 시행기관으로 참여해 전문적인 현장 조사와 시공관리를 맡아 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소방서, 道 소방기술경연 화재진압분야 출전 '맹훈련'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2026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분야 출전을 앞두고 맹훈련에 돌입했다.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소방경 박제선의 지휘 아래 선수 6명이 한 팀을 이뤄 출전하며, 대회를 앞두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하며 호흡을 맞추고 있다.

2026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오는 18일 장수군에 위치한 전북소방교육훈련센터에서 열리며, 전북지역 6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팀에게는 전국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화재진압분야는 신속한 상황 판단과 정확한 팀워크, 강한 체력과 반복 숙달이 요구되는 종목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표 분야다.

완주소방서 선수단은 대회 당일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개인별 역할 숙지와 전술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대회 준비 과정은 단순한 경연 참가를 넘어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봄철 스포츠 시즌 대비 체육시설 33곳 대정비 돌입

순창군이 본격적인 봄철 스포츠 시즌을 맞아 관내 체육시설 33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새단장과 안전 점검에 나선다.

군은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팔덕다용도구장, 섬진강파크골프장 등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시설 13개소를 비롯해 각 읍면에서 관리 중인 실내체육관과 게이트볼장 2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의 핵심은 시설 내외부에 쌓인 장기 미사용 적치물을 폐기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증가함에 따라 일제 방역 소독을 실시해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정비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보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결함은 별도의 정비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장수군, 건강장수 행복장수 만들기 프로그램 확대 운영

장수군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건강장수·행복장수 만들기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큰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관내 경로당 141개소, 약 1,9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운영 기간은 10월까지이며,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해 폭염이 심한 7~8월은 운영을 제외하고 진행된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기초 건강검사를 비롯해 일상 속 운동과 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관리 교육과 '3GO' 운동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꾸준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마을별 리더를 선정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료원 직원과 함께하는 날을 운영하는 등 공동체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초리마을, 축제 수익금 모아 장학금 200만원 기부

무주군 적상면 초리마을 주민들이 지역 축제(무주콩농놀이축제) 개최로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전달해 귀감이 되고 있다.

12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2백만 원을 전달한 이경환 무주콩농놀이축제 추진위원장은 "올해로 9회째를 맞았던 '무주콩농놀이축제'가 지역 주민들의 도움과 방문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며 "수익금 중 일부를 무주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값지게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돌아오는 겨울에도 '눈썰매'와 '군밤 굽기' 등 도심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 먹거리를 마련해 인사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 제2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개막!

봄철 대표 건강음료인 고로쇠 수액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제2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주천면 운입암반일암 삼계관광 일원에서 열린다.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는 정청 자연 속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진안의 대표 봄 축제다. 올해 축제는 자연·체험·건강을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봄날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14일에는 분위기를 띄우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고로쇠 수액을 주재료로 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고로쇠 고추장 만들기 △고로쇠 스텝프투어 △고로쇠 달고나 만들기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운입암반일암 제1·2주차장 및 임시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올해는 처음으로 전주시와 진안읍에서 축제장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 '보검 매직' 통했다!

### 촬영지로 모여든 사람들, '앞섬마을' 매력에 푹

무주군 무주를 앞섬 길이 '보검 매직'에 걸렸다. 평일과 주말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발길로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생기가 돌고 있는 것.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tvN 예능 '보검 매직' 프로그램이 첫 방송을 타면서부터 현재까지 평일에는 하루 평균 2백여 명, 주말에는 5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촬영장을 찾고 있다.

아직도 금요일이면 TV 화면 속에서 초보 이발사 '박보검'과 네일 아티스트 '이상아', 그 곁에서 뜨끈한 어묵을 끓이고 바삭한 봉어빵까지 구워내는 '곽동연' 배우가 매주 시청률을 경신하며 시청자들을 무주로 이끌고 있다.

강원도 홍천에서 왔다는 김 모 씨는 "방승이 너무 생생하고 따뜻해서 강원도에서 한달음에 달려왔다"라며 "박보검은 없어도 방승의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미용실과 집기, 주민들까지 모



두 그대로여서 너무 좋다"라고 말했다.

이종대 앞섬이장은 "미용실 서터맨을 자처하면서 매일 바쁘지만,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앞섬마을이 '보검매직' 미용실(무주읍 앞섬1길 14-5)을 중심으로 무주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손잡이기에 마음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촬영 당시의 내외부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촬영지는 매일 개방해 사진 촬영 명소를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어

죽'을 대표 메뉴로 내건 주변의 식당들도 '보검 매직' 특수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

군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촬영지 인근에 약 4백여 평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임시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금강 맘 새김길', '복숭아 꽃길', '앞섬 체험센터', '향로산', '반딧불이 서식지' 등 마을 명소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군, 유기동물 입양 지정기부 조기 달성

### 고향사랑 지정기부 1호사업 '유기동물 입양지원' 성공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고향사랑 지정기부 제1호 사업인 '고향사랑 동물사랑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이 반려인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모금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군은 최근 심 민 군수와 기탁자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기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탁식을 열고, 1천만원의 모금 목표 달성과 함께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이번 성과는 오수지역 단체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

기탁식에서는 오수반려문화도시 추진협의회(회장 심재석)와 의견문화제전위원회(회장 박세근)가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 총 7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한 것이 목표액 조기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번 모금은 지난 1월 말 시작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목표액을 달성하며 당초 6월까지 계획됐던 모금 기간을 4개월이나 앞당기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반려동물의 성지'로 불리는 임실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공감을 다

시한 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금된 1천만원은 임실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보호중인 약 130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는 데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군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에 가구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동장(캠벨), 사료, 배변패드, 장난감 등 필수 반려동물 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양초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입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책임있는 반려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1조 5천억 양수발전소 유치 나서

### 장수군-한국동서발전, 양수발전소 유치 MOU 체결 덕산 용림제~변암 동화저수지

장수군은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의회, 한국동서발전(주)과 장수군 양수 발전 사업 성공적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장수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에너지파크 조성 및 관광자원화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수양수발전소는 기존 저수지를 활용하는 덕산 용림제부터 변암 동화저수지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검토중이며, 500MW급의 발전 용량으로 총 사업비 약 1조 5,000억 원이 투자되어 2027년 12월 최종 선정되면 2038년까지 12년 간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수발전은 남는 전력으로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린 뒤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얻는 방식으로



장수군은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의회, 한국동서발전(주)과 장수군 양수 발전 사업 성공적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장수군>

발전 시 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전원이다.

장수군은 양수발전소 건설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100년 향토기업의 유치로 이어져 약 1,100억 원의 지방세수 및 약 500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 증가, 일자리 창출, 상주·생활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 등 약 1조 9,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활용한 에너지 체험시설과 관광자원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지역 발전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될 수 있어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수발전소 선정 과정은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자 공모가 시작되면 한국동서발전에서 제출된 장수군의 유치신청서를 근거로 기후부에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최종 결과는 2027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립도서관, '미.꿈.소' 공모사업 선정

### 전국 17곳 공공도서관 선정, 전북에서 임실이 유일

전북 임실군립도서관이 도내에선 유일하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2026년 미꿈소(미래꿈희망작소) 전국 확산 사업'에 공모 선정되었다.

'미꿈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

할 어린이·청소년들이 독서와 창조적 제작활동을 결합한 체험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대표사업이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임실군립도서관은 △프로그램 패키지(교구 및 장비) △미꿈소 전문가 파견 △사서역량강화 워크숍 △'미꿈소'브랜드현판 등을 지원받는다.

도서관은 오는 9월부터 '도서관에서 만나는 로봇친구'를 주제로 로봇장비 카미봇을 활용한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종료 후에는 지원된 로봇장비가 도서관 소유로 귀속되어 향후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으로 확대하여 순회운영 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임실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협약 체결

### 의료기관 협력 통합돌봄 기반 강화

임실군은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퇴원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병원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협약에는 임실군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전주고려병원, 효사랑가죽요양병원, 의료법인 디딤의료재단 우리요양병원, 임실중앙요양병원 등 총 6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의료기관이 퇴원을 앞둔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

가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은 퇴원 예정 환자에 대한 사전 평가와 대상자 발굴, 의료정보 공유 및 사례 협력 등을 담당하며, 임실군은 통합돌봄 상담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실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요양·복지 간 연계를 강화해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통합돌봄 기반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병원 치료 이후에도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연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축산분야 협회와 간담회 개최

### 농가와 정책방향 공유의견수렴

장수군은 지난 11일 군청에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축산농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축산분야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우, 양돈, 양계, 오리, 염소, 양봉 등 축산분야 협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장수군 축산분야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축산분야 중점 추진사업과 2026년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축종별 사육환경 개선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 가축질병 예방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사료가격 상승과 축산업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조사료 수확 비용 지원 확대, 고능력 우량정액 보급, 염소 우량종축 지원 확대, 축분의 원활한 활용과 자원 순환 방안 마련, 축사 이전 관련 규제 완화, 소독약품의 농가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장수군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축종별 사육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지원정책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폐농기계 처리지원사업 추진

### 오는 31일까지 해당 주조시 읍면동에 신청서 직접 방문 접수

임실군은 방치된 폐농기계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을 방지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농기계 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방치된 농기계 대상이며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등의 폐농기계 수거를 도와 농촌환경을 정비하고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업인은 폐농기계 수거·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대금을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자에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철가격 변동에 따라 보상가격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주조시 읍면동에 신청서를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관계자 회의

장수군은 지난 11일 2026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방향 공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군청 축산위생과 사무실에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장수군과 한우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논(농) 하계 조사료 확대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

을 나눴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변동과 환율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조사료 생산·수확 제조비를 비롯해 종자와 장비 지원 등을 포함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

업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장수군은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을 확대해 사료작물 파종을 적극 유도하고, 조사료 생산 기반을 한층 강화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사육 기반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김경용 축산위생과장은 "대의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사료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산 조사료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 오수면 한성상회 이용철 대표, 장학금 100만원 전달

완연한 봄기운이 서서히 번지는 3월, 지역 인재를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임실군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지난 11일 군수실에서 오수면 한성상회 이용철 대표가 임실군 애향장학회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한성상회는 오수면에 위치한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역 업체다.

이용철 대표는 2024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용철 대표는 "새봄을 맞아 학생들이 희망찬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작은 보람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완주 외국인 주민 9명, 바리스타 자격증 전원 취득

### 외국인지원센터 전문교육 취업역량 높여

완주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전문 교육을 통해 외국인 주민 9명 전원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당당한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센터는 최근 5주간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카페·외식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전문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과정 속에서 외국인 주민 간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커피 추출 원리와 에스프레소 제조, 우유 스티밍, 라떼아트 등 바리스타 기본 기술과 자격증 시험 대비 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 주민 9명 전원이 과정을 수료하고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며 자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외국인 주민은 "한국에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함께 수업을 들은 다

른 외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어 좋



/완주=김명근 기자



### 무주군 드림교회, 설립 예비 현금 일부 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한예수교장로회 드림교회가 지난 11일 이웃돕기 성금 2백만 원을 무주군에 기부했다. 성금은 지난 7일 진행된 창립 예비 현금 중 일부로 마련돼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박종필 목사는 "성금은 하나님께 '드림', 지역사회에 '드림', 이웃에게 '드림'을 목표로 새롭게 출발한 드림교회의 첫 번째 나눔이자 한 알의 밀알과도 같다"라며 "앞으로 치유와 회복 속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 무주읍에 자리한 드림교회는 지난해 11월 교회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3월 7일 교회학교를 포함한 성도 140여 명이 함께 예배하며 설립의 뜻을 기렸다.

/무주=최희호 기자

##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 부안군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 "학생들의 작은 디딤돌 되길"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대표 김석무)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을 포함해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총 2,500만원의 장학금을 재단에 전달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는 바다의

풍력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 차세대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김석무 대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일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 중교 벽 허물고 소통, 맹신보다 '확인' 택했다

전주의 역사적 도양 위에 뿌리내린 신천지역 수교 증장장막성전 도마지파이 창립 42주년을 맞았다. 지난 94년 덕진구 서노송동에 도마지파의 시온기독교교신센터가 처음 문을 열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배움의 열기가 더해졌다.

신천지 12지파의 공통된 목표에 발맞춰 도마지파의 활동 무대 역시 해외로 뻗어나갔다. 말씀의 바탕 위에 현재 미국과 아프리카 등지에 중심 교회를 두며 세계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춰나갔다. 도마지파는 전북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 이웃을 위한 수십년의 꾸준한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첫째는 '지역 환경 살리기'로 지난 2009년부터 전주의 생명줄인 삼천 일대의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둘째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활동'이다.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행사를 열고, 6.25 참전유공자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더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전주교회는 매월 행사 시 전면 개방했다. 교회와 세상 사이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2013년 전주 경원동, 전북의 대표 여행지인 한옥마을 근처에 전국 12지파 중 처음으로 신천지예수교회 홍보관을 열고 신도와 시민을 연결해주는 성전으로 탐방받고 있다.

/전북타임스 문화부



### (주)한독엘리베이터, 남원시에 500만원 기탁

(주)한독엘리베이터 유정목 사장이 남원시 발전을 응원하며 남원시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주)한독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제조·설치 전문 기업으로, 평소 나눔 경영을 실천해 온 우수 중소기업이다. 이번 기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남원시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유 사장의 진정성 있는 뜻이 담

겨 의미를 더했다. 유정목 사장은 "남원시 발전에 힘을 보태 기쁘다"며 "기부금이 남원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활

력을 높이는 사업에 요긴하게 쓰여, 남원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경식 시장은 "기부금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남원을 만드는 데 내실 있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고창군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행렬 이어져

#### 대한고속용천건설 장학금 전달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재)고창군장학재단은 대한고속이호진 대표가 500만원, 용천건설 박운주 대표가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대한고속 대표는 "고창의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지역을 빛낼 인재로 성장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운주 용천건설 대표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탁의 뜻을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기탁자 한분한분의 정성을 모아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다시 지역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정읍 내장상동 새마을부녀회, 홀몸 어르신들에 밀반찬 전달

정읍시 내장상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송래정)는 지난 11일, 관내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직접 만든 밀반찬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봉사에는 부녀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아침 일찍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밀반찬을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는 홀몸 어르신 30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생활 실태와 건강 상태를 살폈다.

송래정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정을 나누는 활동은 회원들에게도 큰 보람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경이 회장은 "회원들의 꾸준한 봉사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내장상동에서도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장상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 내 봉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공백없는 필수의료, 따뜻한 공공의료, 함께하는 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JEONBUK STATE NAMWON MEDICAL CENTER



< 원장 : 오진규 >

시간을 아끼십시오. 뛰어야 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제작은 저희가 책임지고, 후보자는 유권자를 만나십시오.


기획부터 인쇄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제작 파트너가 함께합니다.

6.3 지방선거 ONE-STOP 선거홍보 제작팀

JT 준테크 Tel 063.226.5888 E-mail jhchoi3075@hanmail.net

대흥정판사 Tel 063.254.0056~7 E-mail hi0056@hanmail.net

AP Tel 063.251.0987 E-mail ap0987@daum.net



〈一事一言〉



협약 뒤에 숨은 행정, 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시설 운영상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이 사안의 핵심은 공공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이 과연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2016년 민자투자 방식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태영건설 등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했고 협약에 따라 운영 역시 민간 사업자가 맡고 있다.

민간의 자본과 효율성을 활용하는 민자사업 구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전주시가 내놓는 답은 늘 똑같다. “운영은 사업자의 권한”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행정의 책임을 지나치게 가볍게 만드는 변명예

가 많다. 민간이 운영을 맡았다고 해서 공공의 감독 책임까지 민간에 넘겨진 것은 아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이며,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시민 부담과 직결된다. 협약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이 한 발 물러서는 순간 공공의 책임은 공백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건조분 처리 문제는 이러한 행정의 무기력을 그대로 드러낸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건조분은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비해 비용이 높고 외부 민간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며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처리비가 지출되는 상황에서 업체 선정 과정과 처리비 산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협약을 이유로 사실상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감독해야 할 행정이 감독을 포기한 채 ‘사업자의 영역’이라는 말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셈이다. 이런 태도라면 민자사업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결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민자사업의 본래 취지는 분명하다.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되 공공의 이익은 행정이 철저히 지켜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감독이 사라진 민자사업은 쉽게 방치와 특혜의 구조로 변질된다. 협약이 아니라 행정 책임을 가리는 방패막이로 작동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오랜 기간 반복되고 있음에도 행정이 이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는 점이다. 협약을 이유로 책임의 선을 긋는 동안 시민의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시설은 특정 기업의 사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자산이다. 따라서 행정이 지켜야 할 것은 협약 문구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이다. 협약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협약 뒤에 숨은 행정이 계속되는 한 공공의 책임은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매워질 수밖에 없다.

전주시 행정은 이제 답해야 한다. 협약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협약 뒤에 숨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은 다시 묻게 된다. 도대체 전주시 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사설

대한방직 특혜 논란, 행정의 대원칙 어디로 갔나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체납 기업인 ㈜자광에게 6조 원대 초대형 개발 사업을 맡긴 데 이어, 도유지 매각까지 추진하려다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 서, 전북도와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특혜 행정’과 ‘경정유착’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최근 도의회 행정위는 전북도가 상정한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공유재산 처분안을 부결 처리했다. 도가 자광 측에 200억 원 규모의 도유지를 매각하려던 계획이었지만, 사업 시행자의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 관련 재산세와 임대료, 변상금 등 11억여 원 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시민이라면 소유의 체납만 있어도 재산 매각이나 각종 행정 절차에서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수억 원의 체납이 있는 기업에게 공공재산을 매각하려 한 행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조4천억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광은 아직 시공사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EOD)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PF 자금 조달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사업의 핵심 조건인 자금력과 실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마치 사업

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기공식을 서둘러 진행했고, 추가로 도유지 매각까지 추진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특혜 의혹을 키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전북도가 자광에 대한 도유지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체납 기업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특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신뢰다. 대형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와 도시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사업 주체의 재무 건전성, 자금 조달 능력, 사업 실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공공재산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체납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기업에게 초대형 개발사업을 맡기고, 추가적인 공공재산 매각까지 추진했다면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과 다르지 않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과 재무 상태를 다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전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인 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의혹을 외면한 채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과 지역경제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행정이 특정 기업을 위한 길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원칙 위에서 서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다.

독자광장

봄철 산불, 작은 불씨가 대형 재난 부른다



전주완산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위 채경희

봄은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등산과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반복되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평균 5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약 4천 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불의 상당수가 건조한 봄철에 집중되며 3월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입산객이 늘어나고 영농 준

비 과정에서 논·밭두렁이나 영농 부산물 소각이 증가하는 시기와 맞물려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이러한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속에서 발생한 불씨는 순식간에 산림으로 확산돼 광범위한 산림 피해와 주민 대피 상황으로 이어졌다. 산불은 단순히 숲을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과 기반시설, 문화재까지 위협하며 지역 공동체 전체에 장기간의 피해를 남긴다.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입산객의 실화,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소각, 담배꽂초 투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라고보다 사람의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예방 가능한 재난’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은 불씨라도 바람을 타면 순식간에 능선을 넘어 확산될 수 있어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피해 규모가 크게 늘



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꼽힌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을 삼가고,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담배꽂초를 무심코 버리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 즉시 119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우리의 산림은 단순한 자연환경을 넘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수십 년 동안 가꿔온 숲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봄철 산행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지금,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 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산불 예방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불씨 하나를 조심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오늘의시

봄봄봄 그리고 봄 / 김용택

꽃바람 들었답니다  
꽃잎처럼 가벼워져서 걸어요  
뒤꿈치를 살짝 들고  
꽃잎이 발힐까 새싹이 발힐까  
사뿐사뿐 걸어요  
봄이 나를 데리고 바람처럼 돌아다니요  
나는 새가 되어 날아요  
꽃잎이 되어  
바람이 되어  
나는 알아요 당신께 날아가요  
나는 꽃바람 들었답니다  
당신이 바람 넣었어요

시인 약력 : 1948년 임실 진메 출생.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칭이 있다. 고향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시작활동을 했다. 1982년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낸 21인 신작 시집 '꺼지지 않는 햇불'에 '섬진강 1'의 8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6년 '김수영문학상', 1998년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2001년 독립단편영화 '들'에 이어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조연으로 출연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문화재



김기서강학당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교육기관, 서당
- 지정일 - 1981년 4월 1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고창군 사동길 40-160  
(고수면, 김기서강학당)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익산시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8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책을 따라 걷는 도시, 전주 '도서관 여행'

### 전주 곳곳을 잇는 도서관 여행 코스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되는 인문여행

한 도시가 책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도서관과 서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전주시는 도서관을 단순한 독서 공간으로 보지 않고 시민 결의 생활문화공간으로 확장해 왔다. 나아가 이를 관광과 문화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며 '도서관 여행'이라는 새로운 인문관광 모델을 만들어 왔다. 전주의 개성 있는 도서관과 지역서점, 문화공간을 하나의 동선으로 엮어낸 프로그램이 바로 '전주 도서관 여행'이다. 그 운영 현황과 올해의 추진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연화정도서관



아중호수도서관

#### ▲ 책으로 만나는 도시, 전주 도서관 여행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책이 사람과 사회를 성장시키는 힘이라면, 도서관은 책과 시민을 잇는 공간이다. 그래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장소를 넘어 도시의 문화 수준과 공동체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넘쳐나고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차분히 읽고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공간'에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도서관은 사람과 문화를 경험하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전주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도서관을 도시 관광과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대표 사례가 '전주 도서관 여행'이다. 전주의 특색 있는 도서관과 문화공간, 지역서점, 정원 등을 하나의 코스로 엮어 책을 매개로 도시를 체험하도록 기획한 전유 코스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해설사와 함께 전용 버스를 타고 도서관과 골목, 문화공간, 동네서점을 둘러보며 전주의 문화와 일상을 경험한다.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책을 따라 도시를 걷고, 도시를 읽는 여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 더 넓고 깊어진 '2026 전주 도서관 여행'

올해 '2026 전주 도서관 여행'은 프로그램 규모와 내용이 한층 확대됐다. 전주시는 오는 4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하루코스 1개와 반일코스 2개 등 총 3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도서관 중심 코스에 정원 산책 프로그램을 더해 지역서점과 덕진공원 등을 포함한 총 9개 코스로 확대 운영된다. 책과 공간, 자연과 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전주만의 인문 관광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루코스는 크게 '도서관문화 코스'와 '기록문화 코스'로 나뉜다. 도서관문화 코스는 완산도서관과 아중호수도서관, 서학예술마을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등 전주의 특색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책과 공간을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상수집', '사색하원', '정원산책' 코스에서

는 도서관을 연 속에서 독서와 주의 공간을 천천히 걸

거점으로 자 서색을 즐기며 전 어볼 수 있다. 기록문화 코스는 전주의 출판과 기록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꽃심과 동문헌책도서관, 완산본문서관 등을 잇는 '서사한편 코스'에서는 목판 인쇄 체험을 할 수 있고, 서학예술마을과 한옥마을, 천년한지관을 연결한 '기억한장 코스'에서는 한지 제작 체험을 통해 여행의 순간을 한 장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반일코스는 보다 가볍게 도서관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역서점과 연계한 오전 프로그램에서는 팬드 로잉과 키팅 제작 등 참여형 체험을 진행하고,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서학예술마을도서관과 한옥마을도서관, 동문헌책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 등을 둘러보며 전주의 도서관 문화를 여유 있게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2026 전주 도서관 여행'은 도서관을 출발점으로 전주의 문화와 공간, 일상을 함께 체험하는 인문 관광 프로그램으로 한층 확장되고 있다.

#### ▲ 도서관이 풍경이 되다... 전주의 새로운 문화 명소

전주 도서관 여행이 주목받는 이유는 각 도서관이 뚜렷한 개성과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하나하나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전주의 풍경과 문화, 삶의 결을 담은 새로운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아중호수도서관은 음악 특화 도서관으로, 호수를 바라보며 독서와 음악 감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LP 턴테이블과 CD플레이어를 갖춰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호수를 따라 펼쳐지는 풍경이 특별한 독서 경험을 선사한다.

다가여행자도서관은 전라감영 인근 옛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여행 특화 도서관이다. 여행 설계와 정보 안내, 여행 경험 공유가 가능한 공간을 갖추고 있어 시민과 여행자가 함께 머무는 여행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동문헌책도서관은 과거 책방 골목의 기억을 살린 현재

특화 도서관이다. 시대별 베스트셀러와 다양한 현재 자료를 통해 세월의 흔적과 책의 가치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화정도서관은 덕진공원 연못 한가운데 자리한 한옥 도서관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도서와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다. 덕진공원의 풍경과 어우러져 전주다운 독서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꼽힌다.

#### ▲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는 도서관 여행

전주 도서관 여행은 시민과 관광객의 높은 관심 속에 전주의 대표 인문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프로그램에는 2,538명이 참여했고, 만족도는 96.8점을 기록했다. 참가자의 57%가 타지역 방문객이었으며, 이 가운데 44.7%는 전주에서 2일 이상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 여행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주시는 올해 도서관 대표 3대 책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책누리 도서관 여행', 직장인을 위한 '위케이션 도서관 여행'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책을 매개로 공간에 머무르는 체류형 프로그램인 '북스테이 도서관 여행'을 새롭게 도입한다. 만나질 코스와 1박 2일 코스로 운영해 '책 읽는 도시 전주'의 체류형 문화관광 모델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도서관 여행은 도서관의 공공성과 문화적 가치를 관광 콘텐츠로 확장한 전주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도서관 조성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책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책을 따라 걷는 길은 결국 도시의 미래로 이어진다. 전주가 만드는 도서관 여행은 단순한 관광상품이 아니라, 책과 사람, 공간과 일상을 잇는 도시의 새로운 문화 전략이다. 책을 따라 걷는 도시, 전주. 그 길 위에서 전주는 지금 새로운 도시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장정철 기자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시

**김제의 바다, 새만금신항과 함께!**

새만금 신항 | 새만금 2호방조제 | 스마트 수변도시 | 동서도로